

도시의 나무 · 농의 나무



도시의 나무 · 나의 나무

광주예술로 5명의 작가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도시의 나무가 함께한 6개월간의 기록집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연대

이 경 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완성할 수 있다.

-김산하 '살아있다는 건'-

다른 생명을 볼 틈도 없다.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다. 새들의 지저귀도 나비의 날개짓에 무신경한 눈길만이 있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자동차와 고층건축물이 가득 찬 우리의 도시는 숨이 막힌다. 도시에서 다른 생명을 살필 겨를도 없다. 살아간다고보다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다른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시작은 다른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생명, 우리는 새들 작은 벌레들의 집이 되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쉽게 그 고마움을 잊는 자연, 우리는 가로수라 불리는 도시의 나무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나무들은 길러지고, 옮겨지고, 심어진다. 그리고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해 베어지고 옮겨진다. 전선에 걸린다고, 간판을 가린다고,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무의 가지들은 쳐내어진다. 거리의 가로수가, 아파트단지과 학교의 나무들의 수난사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예술로의 작가들의 5개월, 이들의 현장은 거리였다.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무가 해 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김옥진, 최재덕, 조성국, 채지윤, 박일광 작가들의 '나의 나무'는 그림이 되고, 사진이 되고, 글이 되고, 옷이 되었다.

대인 시장 앞 가로수길, 양산호수공원, 가톨릭평생교육원, 인권도시포럼의 장에서 시민들은 '나의 나무'의 이야기를 보며 '그래, 나무들이 살고 있었네' 라며 많은 공감을 해 주었다.

예술로 작가들의 작품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책으로 만들어진다니 참으로 좋다. '나의 나무'를 찾는 누군가에게 이 책에 담긴 작가들의 경험이 좋은 안내자가 되었으면 한다.

나무를 함께 만난 이들

김옥진

사라져 가는 것. 잊혀져 가는 것,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들, 숲터의 무늬들을 찬찬히 바라 보고 기록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조성국

고통받는 타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는, 그런 시 쓰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최재덕

사람 속에서 누구나 함께 숨 쉬면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던 오래된 동네 풍경이던 사람의 숨이 오래 묵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채지윤

‘몽요담(夢妖談)’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공간과 사물을 통해 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박일광

자연과 동물을 소재로 감정을 담아 작품을 하는 '어른이 읽는 동화' 작가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숲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가는 녹색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1989년 3월 17일에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환경은 생명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맞서, 자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의 하천과 숲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탈핵, 탈석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1회용품 없는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나의 나무

우리는 나무를 글로 말로 읽어 내며 인간이 정리한 그들의 습성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우리는 허락도 없이 동네 언저리의 어느 나무를 나의 나무라고 정하고 친구가 되기로 했다.
봄이면 새싹이 돋고 낙엽이 지면 가을이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되어 바라보니 오늘은 지난주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주 아주 조금씩 서서히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 6개월의 기록으로 '나의 나무'를 소개하려 한다.



김옥진의 나의 나무

나무가 사는 곳 : 연제동 산 23

집에서 걸어가면 10여분 남짓의 길가가
나의 나무가 사는 곳이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딘지 어색해진 나무...
그래서 가끔 눈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2022. 05. 29.

오늘부터 너는 나의 나무야
나는 너를 자주 보러 올 거야
비바람이 치는 날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날
풀벌레 소리가 어둠 속에 가득 채워지는 날도
나는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



2022. 06. 02.

나처럼 버려진 이들과 함께

2022. 06. 02.

밤의 친구





2022. 06. 06.
바람을 바라보다.



2022. 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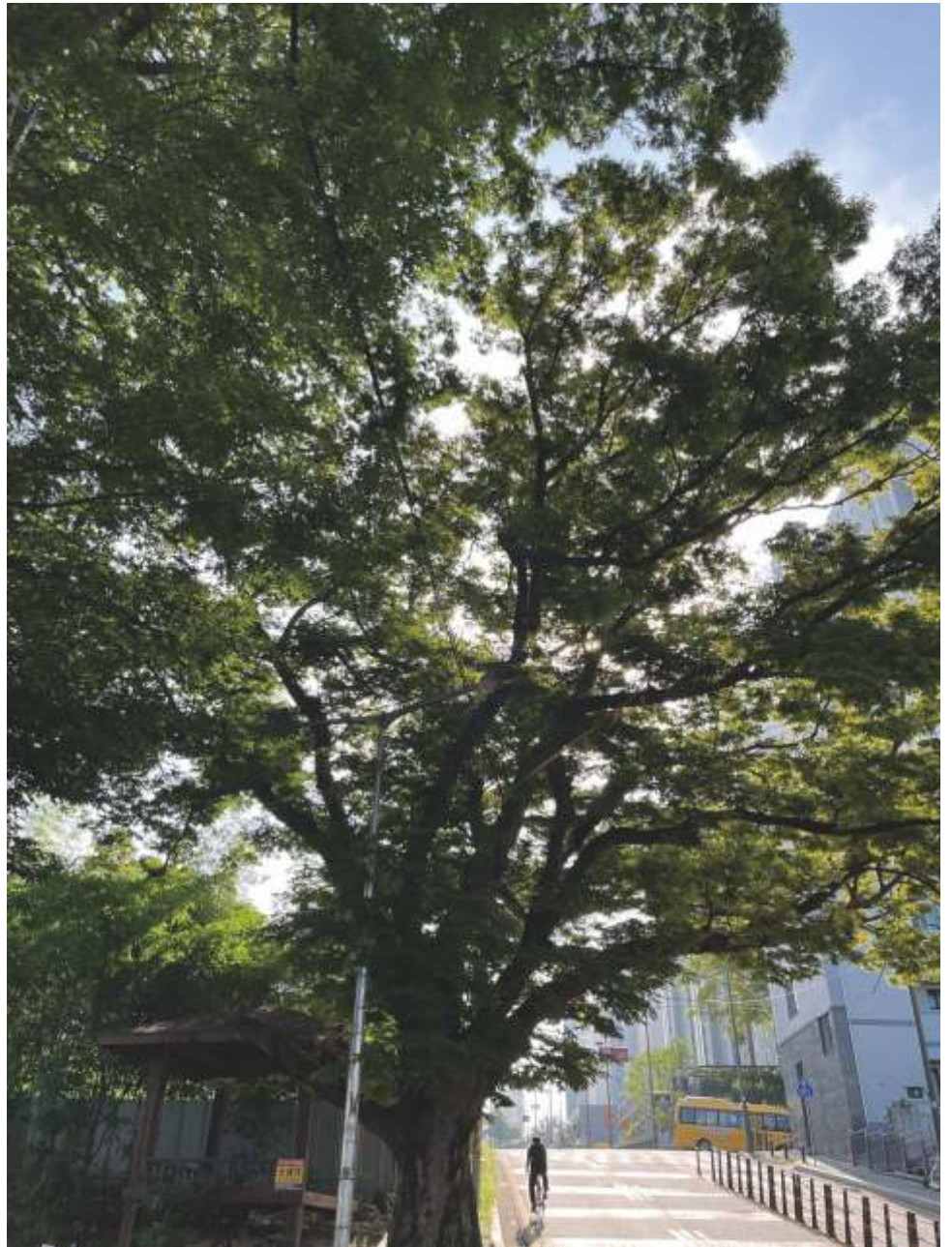
비가 내린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린다.



2022. 07. 30.

친구...가 남아 있어 다행이다.

2022. 08. 22. 8:40
시원한 물줄기가 그리운 날





2022.08.24.

늦은밤 가로수 불빛을 달빛삼아 자동차 소음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든다.



2022. 09. 05.

큰바람이 불것같다.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2022. 09. 23.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날



2022. 09. 28.

가을이... 오려나 보다.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2022. 10. 05.

하늘이 멀어진다.



2022. 10. 07.
노을빛인지 가을빛인지 붉게 물든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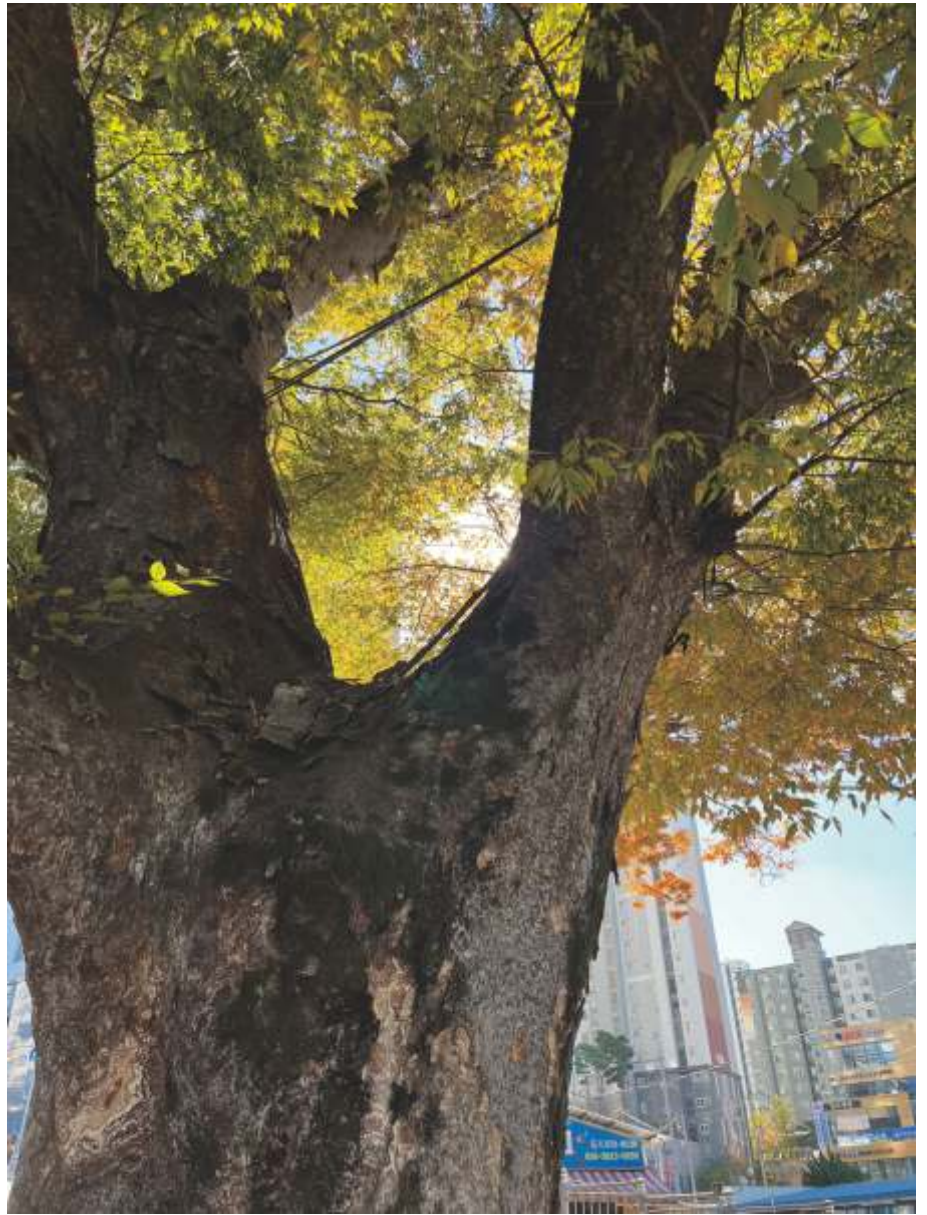
2022. 10. 16.

밤의 온도가 차갑다.

지나가는 이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밤이 길어진다.

2022. 10. 19.
노을빛에 물들어간다.
이제 서서히
땅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박일광의 나의 나무

나무가 사는 곳 : 광주광역시 군왕로 82번길 27-3 길가

학명 : 팡팡나무

나의 나무가 된 이유 : 예술인 5인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 관심을 두었고, 그 중 도심의 가로수의 상황을 살펴보고, 예술인들이 가로수를 통해 나무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각자의 나무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나의 나무는 커다란 가로수가 아니라 어느 집 담벼락 아래에 아슬아슬하게 홀로 자란 이 여린 아기나무가 눈에 속 들어와 '나의 나무'가 되었다.

2022. 06. 25.

팡팡이를 처음 만난 날!

시멘트와 벽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나무

어떻게 씨앗이 시멘트길과 담벼락 사이 조그만 틈 사이로 떨어졌을까...

SUB차량의 뒷 범퍼만큼 키가 자란 팡팡이는 아기 강아지가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 차가 조금만 후진하면 밟힐 거 같은데.....

너 날마다 차가 멈출 때마다 떨고 있는 거 아냐?



2022. 07. 09.

보름 후,

날마다 매연을 먹고살면서도 씩씩하게도 한 뼘쯤 자라 있구나!

이젠, 꼭! 꽃사슴만큼 자란 거 같아~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작은 어린나무야~

아고!!! 언제였을까.. 가지가 부러져진 걸 보니

바퀴에 밟혔니? 나뭇잎들이 노랗게 아프다고 말하고 있구나!



2022. 08. 24.

팡팡아! 헉!!! 허리가 90°로 꺾여서 아프겠다. 정말 많이 컸구나!

여름이어서 햇빛도 비도 많이 와서 인지 초록빛 잎사귀가 너무 예뻐 가시도 더 뽕족하고 길어지고,

주황색을 띤 작은 열매들도 열렸네.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정말 많이 자랐어.

너를 반듯이 세워주고 싶는데... 위에서 줄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야 할 거 같은데...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으면 너에게 도움이 됐을까...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차 지붕만큼이나 큰 너를 할 수만 있다면 뿌리 채 뽑아서 흠이 많고,

차에 치일 염려도 없는 우리 집 화단으로 데려오고 싶구나!

너무 날씬한 팡팡아, 다음에 너를 만나러 올 때는... 너의 허리가 쪽 펴져 있었으면...

바라고, 바란다.



2022. 9. 20.

한 달 후, 다시 너를 만나러~

몸통이 절반이 삭둑!! 집주인이 주차를 할 때마다 팡팡이의 구부러진 가지가 거슬렸는지 구부러진 부분만큼 잘려나갔구나.

왜 인간은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가지치기를 하고,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데도 떨감을 만들고, 뿌리째 뽑아버리는지...

흙도 많지 않은 저 열악한 곳에서 곳곳이 버티는 저 어린나무를...

팡팡아 너를 없애버리지 않고, 줄기만 자른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여름의 그 초록으로 건강했던 너의 표정도 서서히 미소를 잃고, 잎마다 걸쳐진 거미줄까지 너를 더 처량하게 하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



2022. 10. 18.

가을을 온전히 느끼는 듯한 팡팡이를 보며~

노릇노릇한 잎들이 많아지고, 물기가 없어져 푸석푸석한 건강상태.

여름에 맺혔던 열매들도 떨어져 없어지고...

너도 다른 나무들처럼 가을을 느끼고 있구나!

폭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시멘트 사이에서 마치 침부터 땅이란 것이 딱딱한 거라고,

알고 있을 거 같은 너라서 곳곳함을 지키는 너에게 오늘도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연을 배운다.



조성국의 나의 나무

나무가 사는곳: 풍암순환로 54 가로변 한신 떡방앗간
풍암동 당산 어린이 공원

2022. 07. 06.

네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

내가 명명한 너의 이름, '떡방앗간 앞 느티'의
그 초록의 뿌리에게
종종 안녕하냐? 말을 건네 보고 싶다.



2022. 07. 12.

나무여 나의 나무여,

하늘이 내리는 눈과 비와 우박과

별과 달과 해와 함께 쓰는 초록 정령의 묵서라 부르리!



2022. 08. 03.

그저 무명의 안락을 한 줌 쥐고 사는 생이라.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불 밝히는 저녁이 오고 있다.





2022. 09. 02.

아무리 보아도

내 연듯빛 혹은 진진초록 광채에는 술한 나뭇가지와 집이 열기설기 깃들어서
혼자라는 말보담 함께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나에게

사람의 숨소리가 깃들어 있을 거라 여겨보자

그러면 어느새 사람은 그윽한 나무의 옆이 된다

지나가다 문득

어쩔 견주거나 허그를 하거나 허리를 가만 기대보는 사람과 나무는

나무와 사람은

서로를 축진하는 서로의 소슬한 곁이 되는 것

나무만 살리고 사람만 따로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는 데

나무만 싱싱 태연하지 않는다



2022. 09. 20.

너에게 가는 길에는 언제나
진진초록 등축이 켜졌다!



2022. 09. 24.
네가 드리운 그늘로 해서 길이 밝아 보인다
틈새의 하늘이 더 푸르러 보인다



갈 때를 알고
노랗게 아름다워지는, 하여
곧 이파리 떨어지니
나무는 사뭇 나뭇이겠지
길바닥에 내려앉은
가랑잎
바람에 쓸려가고
한 뼉 심장이 히히해지는
그때만큼은
우린 잘못을 지나
어떤 죄라도 벌하지 말자
저 빈 나무에
이파리 한 잎 없어도
여전한 하늘 아래
우리

채지윤의 나의 나무

나무가 사는곳 :

북구 풍향동 지하철공사와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8차선 도로의 인도 위 혼자 있는 은행나무



처음 나만의 나무를 선택하라고 할 때 쉬운 일일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가까이 나무가 많은 푸른길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나무 고르기 산책'을 쇼핑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나무들은 각자의 명분에 의해 잘 관리되어 있었고 '나의 나무'라고 하기엔 각자 다른이의 명패가 적어져 있었다.

나무를 선택하는건 쉬울것이라 생각했는데 멋있는 나무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나의 나무'였다.

그러던 중 무지막지한 가지치기의 가로수나무들 사진을 보고 그때 집 앞의 가로수 나무는 어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었고 당연한 듯 지나쳤을 이 은행나무

이 친구를 '나의 나무'로 관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가로수 나무들과 그 주변 환경들...

'나의 나무'는 가로수로서 겪는 도시의 환경적 변화와 그로 인해 나무가 겪는 변화들을 나무의 입장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2022. 06. 08.

어느 날 땅이 울고 친구들도 사라지더니 나만이 텅그러니 남아있다.
나의 몸을 끈으로 칭칭 감겨있고
낡은 소파가 뉘이고
말을 하지 않는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



2022. 08 24

뜨거운 날.

콘크리트가 덮어진 해가 들지 않는 빈방에
나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2022. 08. 27.
남은 나무 벤치가 놓이고
그래도 나의 왜소한 그늘에
몸을 기대는
어느 누군가의
잠깐의 쉼이 될 수 있어서 좋다.





2022. 09. 14.

비가 오고 난 뒤 조금 추워진 날씨와 부는 바람에 나의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제는 그 잠깐의 씬을 기대는 그들도 달갑지 않았나보다.

내 주위를 사람들은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멀어져 걸어간다.



2022. 09. 19.

저 멀리 보이는 옆 친구들보다는 몸이 왜소해 졌지만 난 아직 해를 맞으며 버티고 있다.

덜컹거리는 도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지하철 공사로 시끄러운 소음들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2022. 10. 06.

주위의 열매들은 누군가에 밟혀 가을 향기가 진동한다.



2022. 10. 21.
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말하지 않는 이웃의 지표가 되고
그렇게 나의 색은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다.

최재덕의 나의 나무

나무가 사는 곳 : 덕흥동

2009년 겨울, 도심 속에 생뚱맞게 너른 논이 있고 넓은 벌판에 덩그러니 놓인 섬 같은 덕흥동 마을. 복잡한 출퇴근길을 피해 한가로운 길을 찾아다니다 만나게 된, 논 가운데 섬, 또 그 섬 속에 우뚝 서 있는 흡사 허파파리와 같은 모습의 커다란 나무. 첫인상은 이 삭막하고 복잡다단한 도시에 마치 생명줄처럼 걸모습마저 허파 같아 아주 강렬하게 와 닿았다. 흡사 동화 속의 수호신 같은 나무는 서낭당 수호신처럼 바쁜 도심 속 활기 가득한 생기의 숨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나무는 우리가 자주 지나다니며, 생활 속에 항상 으레 존재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 되어 지게 되었다. 이사를 하게 되고 한동안은 그곳을 잊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어느 날, 우연히 다시금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강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쪽 가지가 거의 허물어져 없어질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렇게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보니 수술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허파처럼, 이리 짝둑 저리 짝둑 겨우 한해 한해를 살아내고 있었다. 가까이 가 보니 이 조그만 마을에 산허리를 절단을 내어 조그만 길을 내어놓았던 모양이다. 그 여파로 뿌리 한쪽이 많이 상해서 거의 죽어가던 나무의 가지도 여기저기 많이도 잘라 내었었던가 보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여름밤 커다란 괴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새싹들을 많이 내어가면서 살아나고 있다. 기어코 살아내려는 본능의 몸부림처럼, 여름철 도심 속 너른 들판 한가운데 바람을 휘감으면서.



2022. 06. 22.

북쪽과 동쪽이 절단되어 조그만 찾길과 당산나무로 갈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큼직하게 절단 되어진 가지들이 보인다.



2022년 7월
덕흥동 40년된
당산나무. 길가의
이끼섬이 ...

2022. 07.

덕흥동 당산나무 펜 드로잉



심은 초록
삼근 부서진 가래를
거두어와 남가
조용 조숙 새의
일파리는 덩굴처럼
산아 남아가리 있다.
400년 된 옥동
당산 나무.

2022. 7. 7

2022. 07.

펜 드로잉

뜨거운 여름날 비록 모습은 정상이 아닐지라도 많은 바람과 그늘을 품고 있다.



2022. 08.

400여 년의 덕흥동 당산나무
고사 되기 직전이다.

이리저리 잘려나간 가지들로
나무는

흉물스러운 모습까지 보인다.



2022. 09.

영산강 줄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청과 상무지구 소각장 탑이 보인다.



2022. 09.

북쪽에서 바라보는 덕흥동 당산나무

저 나무 아래에서는 광주가 한 바퀴 휘둘러 보인다. 더불어 바람도 많고 햇볕도 많다.



2022. 10. 09.

덕흥동 400여 년의 당산나무

저 느티나무 밑에 서면 광주가 한 바퀴 휘둘러 보인다.

지금은 저 나무 바로 남쪽에 저 나무만 한 커다란 건물을 짓고 있다.

풍경도 잘리고 바람도 잘리고 남쪽의 따뜻한 햇빛도 잘리고 이 나무는 또 고통을 안고 가겠지?



드로잉 1
덕흥동 당산나무 펜 드로잉



드로잉 2
덕흥동 당산나무 펜 드로잉



드로잉 3

덕흥동 당산나무 펜 드로잉

흐린 날 풍경을 펜으로 드로잉 해봤다. 겨울철의 앙상한 가지의 400여 년의 사람들 곁에서 지켜왔던 당산나무



드로잉 4
덕흥동 당산나무 펜 드로잉



2022. 10. 20.

따뜻한 남쪽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나와 우리의 나무

10월 20일 우리는 모두 서로의 나무를 만나는 여행에 나섰다.

사진으로만 말로만 듣고 보던 나의 나무들을 소개하고 만나러 간다.

친구의 절친을 만나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나의 나무를 만나고 우리는 나무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종일 소음과 매연 속에서 살아내는 나무는 무슨 생각으로 하늘과 바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과 그곳에 등지를 틀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날 우리는 나무옆에 가만히 서있기로 했다. 나도 나무가 된 것처럼

나는 나무
나무가 되어 보기로 했어 우린 친구가 되었지만
난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처럼
어느 길가에 서있기로 했어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나는 나무' 라고 새긴 옷을 입는다



면티셔츠_실크스크린

2022. 07. 28.
금남로-나무가 되어 서 있다.





2022. 08. 25.

생태예술워크숍-나무가 되어볼 결심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시민들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20여 명의 시민들과 대인시장 앞 은행나무 옆에 선다.





나무가 되어 볼 결심 2

나무가 되어 본 우리들의 이야기

김옥진 : 우리가 나무가 되어 서 있는 동안 누군가 옆 친구와 얘기 하는 것을 들었다.

나무도 가만히 서 있지만 옆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을거야.
멀리 있는 친구에게는 바람에 담아 이야기를 전달할지도 몰라.

박일광 : 처음 5분은 아무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몇 발작 움직이기도...
고개를 들어 나무를 자세히 보니
그저 우뚝서 몇 십년을 그렇게 묵묵히 비바람을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무야! 너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지?

채지윤 : 가로수를 의인화 시키는 작업의 계기가 되었다.

나무들에게도 시간은 가겠지. 나무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겠지.
나무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작은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들인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딘가에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서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같이 협조하고 인식이 변화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최재덕 : 나무 밑에서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운 여름날의 햇빛을 피할 그늘이 필요했다.

다행히 우린 건물과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로 서 있을 수 있었다.
한곳에 머물러 있다보니 매연과 소음이 직관적으로 다가왔다.

조성국 : 알아도 나무였고 몰라도 나무였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

“고정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상가들의 속사정도 알것같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났다. 함께 살자 공존하자라고 했는데 나무는 실상 인간이 필요치 않지만
자신을 내어주며 인간과 살고 있었다.”

“나무가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나무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들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서있기 힘들었다. 나무도 그럴 것 같다.”

“문정희 시인의 나무가 생각났다.”

“욕심이 사라졌고, 편안한 마음이 됐다. 나무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나무 친구가 생기고 나무가 되어 본 시간 들이 쌓이니

도시의 나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지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인간의 욕심으로, 경제 논리로, 거리낌 없이 베어지고, 친구를 잃고, 또 홀로 남겨진 나무에 우리는 미안했다.

그 웅잉거리는 도심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그들의 생명에 대해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다.

아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무뿐만이 아니었다. 인간 중심의 세상, 특히 도시의 생명들은 두 가지로 분리된다.

인간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쓸모가 없는가?

그 쓸모없어짐의 기준을 모두 인간에게 있었다.

간판을 가리고 태풍에 쓰러질 위험을 대비 한다고 마구 잘려나간 나뭇가지

가로수 크기의 2.5배인 보이지 않는 뿌리는 또 얼마나 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가?

잘려나간 가지와 뿌리가 결국 나무를 병들게 하고 바람에 쓰러진다.

가로수를 아프게 하는 과도한 가지치기 1, 2, 3



주차장이 부족해서,
재개발로, 도로를 넓히려고,
간판을 가려서...
도시의 나무는 어느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라져야 하는 나무를 위한 애도

(구)도청의 은행나무는 빈속을 모르타르로 가득 채우고 겨우 살아내고 있었다.

인간의 쓸모에 의해서 뿌리가 잘려졌고(지하철) 인간의 필요에(상징정) 의해서 살아있어야 하기에...

이작품의 모티브는 그 나무에서 시작되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 시대의 벌거벗은 생명_사회적 약자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동안 5명의 예술가들은 도시의 가로수를 기록하고 가로수가 되어보는 시간들을 경험했다.

도시의 생명들. 특히 나무라는 생명체의 보이지 않는 근간인 뿌리를 형상화하며

우리 시대가 생명의 존엄을 바라보는 시선에 물음을 던지려 한다.





사라져야 하는 나무를 위한 애도 가변설치 혼합재료(오브제 등) 2022

도시의 나무를 기록하며 변화된 우리의 이야기

김옥진

살아있는 것들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나뭇잎도 그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 끊임없이 꿈지락 거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나뭇잎 수업. 고규홍... 이 책을 읽으며 아... 그렇구나. 그냥 바람에 흔들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나무가 생생한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느 날이던가, 노랑게 물든 단풍잎은 툭툭 손대면 떨어지는데 아직 푸른빛이 남아 있던 은행잎을 따면서 느꼈던 그 묵직함이 떠올랐다. 이전에 수없이 스치고 지나쳤을 가로수_나무는 이제 그때의 나무가 아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이다.

박일광

처음에는 도심에 산소와 그저 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나무를 찾아 살피고 직접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무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무는 그저 사람과 도시를 어머니처럼 끌어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는 그늘로, 열매, 산소, 자신을 내어주는 떨감으로도 우리를 웃게 하지만 인간은 무엇으로 나무를 웃게 할까... 생각이 많아지는 예술로 활동이었다.

조성국

나의 나무가 된 뒤로 옆이 생기고 곁이 생겨서 내가 더 많이 넓어졌다. 푸르러 좋은 날도 생겼다.

채지윤

가로수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나무가 필요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도 그것이 도구로 사용했을 때도 그저 주위에 사물이 필요에 의해 바뀌는 것처럼 생명 보다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번에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은 큰 산이나 바다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곳에도 존재했구나...

자연을 꿈꾸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의 삶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최재덕

어렸을 때부터 어느 철인가 해년마다 나뭇가지를 보기가 썩 좋지 않게 몽똥거리게 쳐놓은 것을 보았다. 단순한 생각뿐이었다. 좀 좋게 치면 안되나? 딱 거기까지였다. 나는 나무의 행위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가로수에 대한 생각, 인간과 나무의 공존에 대한 생각과 나무의 입장에서 더 생각이 되어진다.

우리의 여섯달_ 180시간의 기록



별책부록

매주 만나 그냥 헤어질 법도 한데 우리는 매번 같이 밥을 먹었다.
밥을 먹기 위해 모인다고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 밥 또한 우리와 6개월을 함께 한 큰 동지다.



2022

도시의 나무 · 나의 나무

김옥진, 박일광, 조성국, 채지윤, 최재덕



지구의 벗
Friends of Earth Korea
광주환경운동연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 지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